

잘 안 맞지만, 10년 째 굽어 봅니다.



# 목 차

프롤로그 .....	2
1부. 아프리카에서 온 그대	
1화. 아프리카로 간 던힐 .....	4
2화. 마! 니도 롯데팬해라! .....	6
3화. 길 없음. 돌아가세요. ....	8
4화. 내게 오는 길 .....	10
5화. 족보 브레이커 .....	13
2부. 이번 생은 처음이라	
6화. 스팸남과 건어물녀 .....	15
7화. 종곱질 .....	19
8화. 베라끼남 .....	22
9화. 바다가 나타났다!! .....	26
에필로그 .....	30

##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는 언제나 설렘이 동반되곤 합니다. 새로운 글을 시작하며, 저 역시 그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웃고, 때로는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마다의 사랑, 꿈, 희망, 그리고 도전을 찾아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별책부록' 같은 로맨스, '불시착'하는 사랑, 새로운 시작과 도전, 그리고 '라라랜드' 같은 꿈을 향한 여정, 엄마의 도전, 그리고 '백 투 더 퓨처' 같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여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바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여정에 참여하시어, 여러분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함께 엮히고 섞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어시스턴트 <뤼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 보니 글을 쓰고 싶었고, 글을 쓰다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쉽게 행동하지 못했던 저를,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여러 작가님의 특강, 북토크 등을 찾아다니며 언젠가 저 자리에 주인공으로 있고 싶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신청하게 된 <챗으로 책 쓰기> 과정에서

AI를 통해 전자책을 출판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AI와 공저를 기획했으나, 제 글을 퇴고하기도 벅찬데, AI가 쓴 글까지 손보려 하니, 요리사의 재능이 아직 부족해, 서문만 뒤편의 글로 올려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온 날 밤, 아이가 제 옆에 자리 누워서 얘기합니다.

“엄마, 짝사랑 얘기해주세요.”

“짝사랑? 갑자기? 근데 짝사랑 맞아? 첫사랑 아니고?”

“아!! 그거 맞아요. 첫사랑이요. 해주세요~~~”

“10주년 여행 다녀온 날 첫사랑 얘기는 좀 아니지 않니?”

“그래요? 그럼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요?”

그때의 대화가 저를 몇 달 동안 꾸준히 글 쓰게 하는 힘이 되었고, 이렇게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글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이런 글도 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염려하며, 세상에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멋들어진 한상차림은 안 되지만, 갓 지은 밥과 찌개로 소박하게 차려낸 밥상을 맛있게, 그저 이 글을 보시는 동안 같이 웃고, 울고, 즐거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로또남녀

**잘 안맞지만,  
10년째 굶어봅니다.**

### **1화. 아프리카로 간 던힐**

잠실 야구장에서 처음 만난 던힐은 훌쩍 큰 키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안경을 쓰고, 누나들 만난다고 위아래 정장을 짝 빼입고, 향수를 뿌렸지만 담배 냄새는 어쩔 수 없는.

수줍게 웃으며 누나들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휴, 어떤 여자가 데리고 살 지 속 깨나 썩겠어. 나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 지지고 볶고 살고 있단 소식을 들었다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였겠지만. 누구나 예상하듯, 반전 따위는 없다. 그 어떤 여자가 바로 나다.)

2000년대 초반, 나는 우연히 아프리카TV에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24시간, 1년 내내 틀어주는 채널을 발견했다.

당시 방장은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며 하나는 애니메이션 전용으로, 하나는 스포츠 채널로, 또 다른 채널은 드라마 등을 운영하며 방송하고 있었고, 그 방송의 열혈 팬이었던 나도 방장의 눈에 띄어 방송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엔 그에게 만화 영상과 자막 파일을 받아서 컴퓨터로 돌리기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박지성 경기를 새벽에 다른 이들과 함께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본격 스포츠와 드라마 콘텐츠까지 채널을 확장하게 되었다.

그때, 내 방송의 채팅창을 관리해 주던 동생들을 몇명 매니저로 두고 있었는데, 던힐은 그 매니저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은 저작권 문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파일, TV 수신카드로 방송이 가능했다.)

친목질에 강했던 나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정모 한 번 하자!! 라며 모임을 추진했고, 던힐을 비롯한 6명의 매니저와 함께 잠실 야구장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때 만난 매니저들 중 던힐은 내 남편이고, 한명은 지방 소도시에서, 두명은 서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인연을 가꾸고 있다.

## 2화. 마! 니도 롯데팬 해라!

2006년 잠실 야구장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꽤 자주 만났다.

당시 가장 친했던 아이와 내가 롯데 팬이어서, 당연히 정모 1차는 잠실 롯데 원정 좌석이었다.

모두가 봉다리를 머리에 뒤집어쓴 가운데.

- 지금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없어진 응원법이지만 당시에는 주황색 쓰레기 봉투를 부풀려 풍선처럼 만들어 머리띠처럼 쓰고 응원한 후에, 경기가 끝나면 그 봉투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응원법이 있었다.

- 응원단장이 단상에서 "봉다리!!"를 외치면 모두가 착착착 봉다리를 제작하는 진귀한 풍경이 연출됐었다. 신문지로 응원 수술을 만들어 쓰는 응원법도 있었다.

- 지금 나는 롯데 팬이 아니다.

던힐, 그는, 봉다리 쓰기를 곳곳이 거부했다.

그 남자는, 프로야구 7개 구단팀 팬들의 공공의 적, SK와이번스 팬이었다.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SK와이번스는 그냥 미쳤었다.

던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SK 팬은 올해도 우승 아니면 준우승은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야구를 봤다고 한다.

주황 봉다리 머리띠를 한 누나들 틈에서 스무 살의 그 남자아이는, 수줍은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당시에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니도 롯데 팬 해라 잦은 헐박을 했지만, 그때 던힐이 팀 세탁은 곧 죽음이라며 거부한 결과, 우리 부부는 함께 응원팀 우승을 목도 할 수 있었다.

- 나는 죽음과도 같은 팀 세탁을 결혼하면서 했다.

- 그때 팀 세탁을 하지 않았다면... 난 아직까지 응원팀이 우승하는 걸 못 봤겠지.

- 롯데 힘 내봐라 "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차곡차곡, 인연도 하나씩 쌓여갔다.  
글을 쓰기 위해 예전 싸이월드 사진첩을 뒤적거렸더니 추억 돋는 사진들이  
튀어나와 우리 부부를 웃음 짓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그때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롯데  
경기라서 던힐이 정모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부부의 인연은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부부가 될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고들 했던가.

혹은 전생에 원수 아니면 은인이라고들 했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그때, 그날의 우리로  
인도한 것이리라.

언젠가는 만날, 만나야 할 인연이어서, 즐거운 청춘의 한 조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던힐아.



### 3화. 길 없음. 돌아가세요.

J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지금의 나라면 그 예의 없음에 분노하여 온갖 쌍욕을 늘어놓았을 테지만.

당시의 나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미생이었으니.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불나방과 다름없는 존재였다.

고정 수입 없이 피팅 모델 일을 하며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그런 내가 버거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식의 이별 통보는 아니지 않나.

예의 없는 그놈과의 연애는 달콤했었고, 유쾌했다.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이었던 나는, 그에게도, 그랬다.

2살 어린 그에게 꼬박꼬박 존대했고, (오늘거리지만 OO 씨라고 불렀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 그의 직업 특성상, 데이트할 때 달달한 디저트는 꿈도 못 꿨으며,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잡히는 경우도 허다하여 여행은 사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 만남 장소는 그의 복층 오피스텔.

그곳에서 던힐과 함께 만남을 즐기곤 했었다.

달콤함은 순간이고, 이별의 씁쓸함은 오래 간다.

그와의 사랑에도 그러했듯, 이별에도 지나치게, 너무도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다 싫고 이 세상 떠나려나'라는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던힐에게 전화를 걸었다.

"OO 씨가 헤어지자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안 된 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잘 지내라."

그 말 한마디에 던힐은 누나 차를 빌려 타고 인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밤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그날 밤의 마지막은.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결혼 전 이날 얘기를 나누며 남편은 웃었다.

"나 그날 자기보다 내가 먼저 고속도로에서 경차 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잖아."

"야, 너도 □□이랑 헤어지고 올면서 나한테 전화했잖아. 개 따라 외국 간다고"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던힐을 보며 나는 J에 대한 미련도, 재미를 좇아 살았던 청춘의 한 자락도 슬며시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

보통 드라마라면 여기서 내가 던힐과 띠로리~~ 마음이 통하는 전개로 나가겠지만, 유일한 반전은 우리 만남이 여기서 시작되진 않았다는 거다.

때론 끝을 알고 시작하는 일과 만남이 있다.

결과를 뻔히 알아도 시작해 보는 것, 청춘에겐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딸아, 그 끝이 너무도 처절한 비극이라면, 너를 잃는 일이라면, 그 길은 가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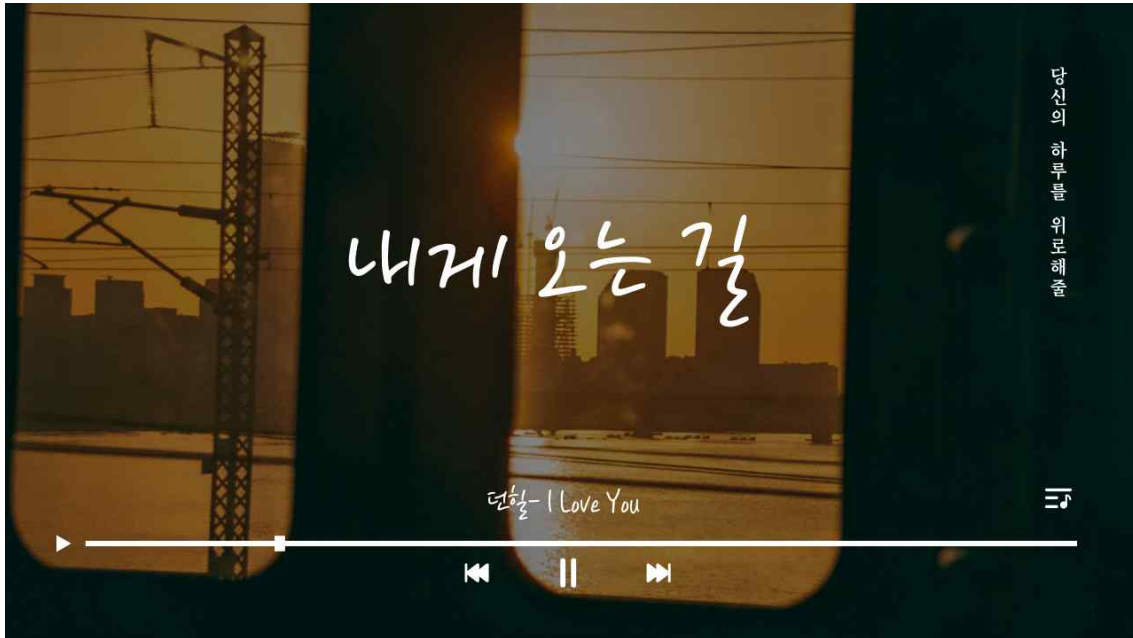
그러나 비탈길도 꽃길로 만들 재주와 용기가 있다면, 엄마는 너를 언제나 지지한다.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낭떠러지로 나를 꾸역꾸역 밀어 넣지 말자. 때로는, 길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찾아야 할 인연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문자나 카톡으로 이별 통보하는 놈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라.

만남에 진심이 필요하듯, 이별에는 더 큰 진심과 예의가 필요한 법이란다.

## 4화. 내게 오는 길



교대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 가는 대로 하며 살았었다. 뼈아프게 후회뿐인 사랑도 해봤고, 이쯤 했으면 원 없이 놀았던 생각에 한없이 찬란하고도 공허했던 나의 20대에게 안녕을 고하고 고향에 내려갔다. 부모님과 대화 끝에 다다른 결론은 공무원 공부를 해보자는 거였다. 첫 시험을 보고 자신감이 붙었다. 남들은 어렵다는 영어 점수가 잘 나왔다. 이만하면 해볼 만하겠다는 오만함이 튀어나왔다. 그 오만함은 수험 기간 내내 나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만들었다.

20대 마지막 해에 시작한 공부는 30대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러기를 벌써 3년이 되었다. 1점차 탈락이다. 역시 나는 공직과는 맞지 않는 사람인가.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날, 시험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던힐이 마중을 나왔다. 그래, 올해도 안되면 내 길이 아닌 걸로~ 훌훌 털고 오늘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던힐이랑 신나게 놀자.

책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오늘은 서점 가지 말고 그냥 놀자. 맛있는 밥을 먹고, 달달한 것도 먹고, 강남 거리도 걸었다. 오랜만에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었다. 자꾸 마음이 울렁거린다.

던힐이 더운 거 싫어하는데, 괜히 밖에 나왔나. 얼굴이 너무 붉은데?

푸릇한 여름 하늘 보며 오래도록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 같았다.

여러 날 피었다 졌다, 또 피었다 졌다. 어느새 온통 자줏빛으로 나무가 물들었다.

간질간질, 자꾸 간지럽힌다. 배롱나무 가지도. 내 마음도. 그의 마음도.

집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시간이 되었다.

터미널 근처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가야돼"

"어.... 그러네."

바람에 살랑, 떨어지는 꽃잎이 바닥과 입을 맞추었다.

"잘 도착했어?"

"응, 너도 잘 갔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전화기 너머로 공중에 흩어졌다 사라졌다.

"아까는..."

".....누나. 나랑 만날래?"

너랑 나랑 나이차이가 어찌고, 나는 아직 번듯한 직장도 없고 등등  
구차한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생각이 느리고 말은 더 느린 던힐이 그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결심이  
섰다는 거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일단 직진! 아니 잠깐, 아직은 점멸 신호!!!

"야, 너 담배부터 끊어. 담배 끊고 다시 얘기해"

"어 알았어. 끊을게. 약속"

"그리고. 하나 더. 너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알지?"

"어.. 어. 알지. 그건 왜?"

"나 그 노래 불러줘"

담배 냄새를 죽도록 싫어하는 나를 익히 알기에, 그는 흔쾌히 담배를  
끊겠노라 약속했다.

다시 만난 던힐에게 던힐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금연 대신 약간의 뱃살을 얻었을 뿐.

젤리로 조금은 통통해진 양쥬와 할린이의 꽃은 그렇게, 한 송이씩 피기 시작했다.

난 그날밤, 던힐이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줄로만 알았다.

음치인 걸 뻔히 알고 있어서 장난스레 던진 말이었는데 쑥스러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음정을 맞춰 부르려고 하는 게 눈에 선해서, 시험이 끝난 고단함도 잊은 채, 내 마음은 그렇게 위로받고 있었다.

## 5화. 족보 브레이커

모임 멤버들 몰래, 비밀스레 시작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언니, 던힐이 요새 여친 생긴 거 같은데? 왜 말을 안 하지?"  
음... 이쯤 되면 슬슬 알려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첫 번째 타깃은 미쳐와 목하 열애 중인 쪼꼬다.  
"쪼꼬야, 언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니?"  
"까울~ 올 언니 남친이라면 없는 시간도 내야지. 갈게 갈게!"  
그리고 구 던힐, 현 양주의 "누나 안녕?"을 대하는 쪼꼬의 시선은 '니가 왜 여길?' '설마, 진짜로?'  
오만가지 감정을 왔다갔다 하느라 열심히 눈을 굴리는 게 보였다.  
"일단 축하는 해주는데, 그럼 내가 널 형부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  
어렵사리 입을 떼 쪼꼬의 한마디. 스스로도 그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웃는다.

그렇다. 족보 제대로 꼬인 거다.  
"너한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왜왜?"  
"우리 거제도 여행가는데, 캐록이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와~ 이 언니. 캐록이 뒤로 넘어갈 거 같은데? 알겠어~"  
장난스러운 웃음을 주고받는다.

"나 이번 여름 휴가 거제도로 갈건데, 언니 남친이랑 같이 간다~"  
잔뜩 기대하고 나온 캐록이는 내 옆에 있는 양주를 보고는 역시나 기절초풍.  
순진한 이 아이는 도무지 반전이라곤 없다.  
그리곤 쪼꼬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  
"언니야, 그럼 우리 족보 우째 되는 거고?"  
졸지에, 모임에서 가장 어린 던힐은 가장 상위 레벨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도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꼬인 족보는 비단 우리 모임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양주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전히 정기적 만남을 갖고, 1년에 한 번 여행도

같이 가는데, 그해 여름, 커플 동반 여행이 기획된 것이다.  
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딱 봐도 어리다.  
오 마이 갓.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다. 이제 막 스무 살이란다.  
차례가 되어 내 소개를 했다.  
"에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로 몇 살이에요?"  
재차 묻는다.  
"진짜예요. OO보다 7살 많아요."

그날, 양주의 친구들은 나에게 대한 호칭을 정하느라 한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결론은, 친구의 여친은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이 국룰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죄송스러우니 그냥 누나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난 죽어도 친구놈의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못 부르겠다며 끝끝내 "제수씨"를 고집하더니,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제수씨라고 부른다.

그때 모임에 왔던 여자친구들은 그때 남자친구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지고 볶으며 재미나게 잘살고 있다.  
각자 아이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총각파와 유부파로 나뉘어서 매년 여행을 가는데, 학창 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 나로서는 남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제2의 벗이 된 셈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나를 누나라 부르고, 그의 아내들은 나를 언니라 부르니, 이 무슨 족보인지 모를 일입니다.

남편 친구의 아이 중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묻는다.  
"엄마, 그래서 이모야, 고모야?"(그저 웃지요...)

## 6화. 스팸남과 건어물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근무하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돈을 아끼고자 했다.

1. 스프메는 하지 않는다.

대신 티몬에 올라온 스튜디오 스냅샷 쿠폰을 사서 5만 원에 액자 2개, 사진 원본 CD까지 해결.

2. 신행은 하와이나 몰디브는 무리.

큰형님이 결혼 선물로 신행 결제를 해주신다고 해서 푸켓으로 결정.

3. 신혼집은 일단 내 자취방에서

내가 살던 원룸 전세 계약이 10월에 종료되니 그때까지는 둘이 오붓하게 원룸에서 시작하자.

4. 혼수, 예물 생략

시엄마가 해주신 반지랑 목걸이 세트는 감사히 받고, 결혼반지는 커플링 큐빅을 다이아로 바꿔서 계속 끼는 걸로 하자.

가전 혼수는 원룸 계약 끝난 후 상황 봐서 사기로 한다.

한사코 엄마가 예물 시계는 해야된다고 부득불 우겨서 백화점 끌고 가서 남편 시계 사주심

5. 예식장은 단독 예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곳일 것

여러 팀 섞여서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단독 예식 진행하는 곳으로 결정하고 종류만 많고 먹을 것 없는 뷔페 대신 갈비탕으로 하되 맛있는 반찬 위주로 추가로 뷔페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세팅

6.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하니 차는 정리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는 유지비가 도저히 안 나올 거 같아서 정리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합의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내가 주도해서 준비했고, 남편도 잘 따라 주어서 수월하게  
진행했다.

예식 당일,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딱 좋았다.

엄마 아빠는 고향에서 손님들을 전세 버스에 모시고 오셨다.

7월의 하늘이 어찌나 예뻐던지, 엄마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라고  
핀잔을 줬다.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 연습을 하는데 아빠 손이 벌벌벌 떨린다.

나를 누나라며 살갑게 대하는 친구와 제수씨라고 부르는 친구 둘이 축하를  
한다. 모임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서운함에  
눈물 한 방울 흘린 친구가 사회를 본다.

우리 신랑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자라 둘도 없는 친구였다.

'친구 뺏어가서 미안하다~'

부케는 꼬꼬와 미치가 받기로 했다.

연애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15년 가까이 연애하다  
2년 전 식을 올리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주례는 아빠 친구인 ooo 교육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라 주례 부탁에 선뜻 해주신다는 말씀에 무척  
감사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직접 축하의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때 와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잘살고 있어요!!!)

축가가 흐르고, 한껏 즐겁고, 떠들썩한 분위기가 좋았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간,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넘죽  
올리고 엄마 아빠 품에 폭, 안긴다.

에잇, 안 울려고 했는데 망했다.

"우리 이쁜 OO, 고맙다~ 재미나게 살렴~"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일을 마치고 바빠 퇴근해서 저녁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다.

원룸에 인덕션이 1구짜리여서 열정과 함께 열기를 뿜어내며 한참을 준비했다.

남편이 퇴근해 밥을 담고,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 남편이 영~ 젓가락질이 시원찮다.

기껏 준비한 반찬에 손이 잘 가질 않는 것이다.

"왜?"

"아... 나 이거 이거 이거 안 먹어. 그리고 김치 너무 익었어. 난 겉절이만 먹는데"

연애할 때는 90%가 수험 기간이라 데이트 코스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파스타, 샤부샤부, 패밀리 레스토랑. 이 정도 선에서 돌아가며 먹다 보니 남편 음식 취향을 잘 몰랐던 내 착오다.

그냥 계란 프라이라도 후다닥 해서 먹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퇴근하고 힘들게 차려놨더니 안 먹느냐며 부아가 치밀었다.

나이가 몇 살인데 편식하냐,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

안해도 될 소리까지 잔뜩 늘어놓고는

"니가 차려먹어!!!"

밥상을 뒤엎고 밖에 나와 버렸다.

다시 집에 들어가니 방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화를 삭이고 밥은 어찌했냐 물으니 스펀지를 구워 먹었다.

그렇다. 이 남자는 스펀지만 있으면 밥 세 공기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애써 반찬을 만들 필요가 없는, 어찌 보면 편한 사람이었다.

난 여름 반찬 중 가지볶음과 오이무침을 좋아하고, 김치도 익은 김치만 먹는다. 그런데 남편은 가지를 세상 싫어하고 오이무침도 잘 안 먹는다. 김치는 오직 겉절이만 먹는다.

안주 취향은 또 어떠한가.

나는 마른 안주, 감자 과자 종류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오징어땅콩을 좋아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다.

오징어는 오징어 나름의, 땅콩은 땅콩 나름의 고유한 맛이 있는데

짬뽕이라니!!! 오징어에 대한 모독이다.

국 또한 마찬가지다.

몸 쓰는 직업이라 힘내라고 귀한 치마양지 사다가 소고깃국을 끓였다.

건더기를 죄다 건져내고 국물만 먹는 이 남자.

돈이 얼마데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내뱉는 순간 또 한바탕 전쟁이다.

이렇게 취향도, 입맛도 극명하게 다른 스팸남과 건어물녀가 한집에서 복잡복잡 살려니 참 힘이 들었다.

결국 돌고 돌아 반찬은 늘 계란 프라이, 스팸, 김, 고기, 스파게티, 국수, 피자. 반복이다.

계란 프라이도 완숙은 안 먹는다. 하.... 정말 시엄마가 고생깨나 하셨겠구나.

남편은 내가 토르티야에 만들어 주는 피자에 흠뻑 빠져 매일 밤 피맥을 즐기고, 두 달 새 10kg가 쪘다.

처음 봤을 때 남편이 50kg대 후반이었으니, 70kg은 가지 말자며 서로를 토닥였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내가 한 반찬 중 남편 손이 가는 건 바로 진미채 볶음. 끓는 물로 한 번 데친 오징어채를 마요네즈에 살짝 무쳐놨다가 고추장, 다진 마늘, 맛간장 조금 넣고 조물조물. 고추기름 사~악 두르고 휘리릭 볶다가 올리고당 한 바퀴, 불 끄고 깨 올리면 끝이다.

먹다 지겨울 때쯤 남은 진미채로 김밥 몇 줄 말아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별미다.

보통은 치약 짜는 거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사실 치약은 찌약 짜개를 끼워놓으면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입맛이 안 맞는 건 정말, 어찌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고 각자 입맛대로 매일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렇게 원룸에서의 신혼은 적당히 뜨거웠다, 적당히 차가웠다, 적당한 온도로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며 그럭저럭 지나갔다.

그래도 그때 가출까지 감행하며 피 터지게 싸운 덕분인지,

나는 금방 남편 취향에 맞추어 요리를 척척 해내는 내공이 생겼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연애 때 남편은 샤부샤부 먹으러 가자는 소리가 제일 싫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물에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말아 드신다.

## 7화. 종곱질



아이를 낳기 전까지, 친정 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아~들 종곱질하는 거 보러 얼푼 가우야~"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 보러 얼른 갑시다"라는 의미의 강릉 사투리다. 자그마한 원룸에서 살림의 시웃 자도 모르면서 어린 신랑 데리고 살고 있으니 부모님 눈에는 우리가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보이신 게 당연하다. 나나 남편이나 애교가 많은 편이니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아니었으랴!!

결혼해서 살림을 사는 건지, 소꿉장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셨을 게다. 원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000억 앞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고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우리의 첫 공간.

1989년 준공된 4동짜리 이 아파트는 그 작은 곳에 1,10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다.

삼중 주차까지 각오해야 하는 협소한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워낙 오래 되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유모차 한 대 탑승하면 자동으로 다음 차례 예약이다. 큰 방 하나, 미닫이문으로 구분된 1평 넘을까 말까 한 공간이 거실이자 주방이다.

사람 한 명 들어가면 딱 차는 화장실, 침대 하나로 이미 포화 상태인 작은방이 전부였던 17평 작고 오래된 아파트.

우리는 미닫이문을 떼서 베란다에 옮겨 놓고 큰 방을 거실 삼아 생활했다. 작은 방에 침대를 놓긴 했지만, 복도랑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그 방에서 잠을 자기란 불가능했다.

모양 좋은 침대와 화장대가 자리 잡은 탓에 작은방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장점은 교통이 편하다는 것과 주변 세대수가 많아서 먹거리가 많다는 거였다.

지하철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었고, 집 바로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체육관이 있어서 남편은 좋아하는 수영을 다시 할 수 있다며 좋아했고, 매주 목요일이면 아파트 안에 장이 서서 갓 튀겨낸 돈까스며 분식을 사 먹고 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며 살았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면 주변 공원 산책을 하곤 했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7명 장정들이 들어오니 온 집안이 딱 찬다.

교자상 두 개를 붙여서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배달시켜 먹는 건 사치 같아서 재료 몇 가지 사다가 직접 다 만들었다.

남편은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단호박오리찜이 너무 맛있었다며 요즘도 기운이 달리면 꼭 집어 단호박오리찜을 해달라고 한다. 희한하게도 평소에는 단호박을 쥐도 안 먹는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단호박오리찜을 찾는다.

그러면 남편 몸이 힘들다는 신호다.

벽지 가득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놀이터도 없고, 주변이 온통 비슷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만 있어서 어떤  
날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우리의 종급질이 더 이상 종급질이 아니게 된 큰 사건이 일어났다.

## 8화. 베라끼남

우리 부부는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일이 적응되기 시작했던 때부터 임신을 준비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오고 어느덧 임신을 준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임신 소식이 없다.

산부인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 1년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난임 판정이 난다고 겁을 준다.

학교 일이 많아서였는지, 출퇴근이 고되서였는지, 물품 검수 때문에 일주일 한 번 새벽 출근을 하는 남편 탓인지, 감감무소식이다.

2014년 3월, 안달복달하지 말고 진해에 벚꽃이나 보러 가자고 남편이 주말에 휴무를 냈다.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둘이 종급질하며 재미나게 살자. 약속했다. 도시 가득 핀 벚꽃을 보고, 바닷가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올라왔다.

그러다,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

멈춰서서, 내려놓은 순간에. 축복이 찾아왔다.

내 뱃속에 콩알만 한 아이가 들어있다. 심장이 팔딱팔딱 뚱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은 소꿉장난하며 재미나게만 살 수는 없게 되었다. 책임감이 솟는다. 이제 막 스물일곱이 된 남편의 어깨가 무겁다.

날짜를 역으로 계산해 보니 진해에 갔을 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태명을 "바다"라고 지었다.

바다에서 생긴 우리 아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 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가족을 제외하고는 알리지 않을 예정이었건만, 입덧이 심상치 않다.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건 불가능했고, 외식도 힘들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물이 마시고 싶어 주방 불을 켰다가 베란다 문을 꼭꼭 닫고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내며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렇다. 베란다에서 라면 끼리는 남자, "베라끼남"의 등장 되시렸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본 뒤로 나의 입덧은 사라졌다.  
(바다 너, 아빠 애정 테스트한 거였니?)

입덧이 사라지면, 먹덧이 온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입덧의 종류이려나.  
나의 먹덧은 참 희한하게 왔다.  
평생 먹지 않던 간장게장이 당겨서 삼석 선생님이 고르고 고른 집에 가서  
게장을 흡입하고 왔다.  
그 집이 맛있었던 건지, 바다가 정말 게장을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딸아이는 지금도 가끔씩 간장게장에 밥 비벼 달라고 주문한다.

엄마가 나를 가지셨을 때는 비빔밥을, 동생을 가지셨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당겼다고 하시더니 지금 나의 최애 음식은 비빔밥이고, 동생은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쓴다.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 와중에 물에 빠진  
고기(삼계탕, 수육)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쓰고 보니 바다가 간장  
게장이 당긴 거였나보다.  
간장게장은 좀 비싸긴 해도 돈만 있다면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거금 쓸 용기가 안 나서 그렇지.

때는 초여름,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호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다.  
"자기야, 나 호떡 먹고 싶어"  
"응? 지금? 여름에???????"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오뉴월에 호떡이라니, 검색해도  
나올 리가 만무했다.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갈 채비를 한다.  
"나 무서워. 같이 가"

사촌 언니가 임신 선물로 준 중고 아반떼를 끌고 부천으로 나갔다.  
"저깁다!!!"  
남편이 주차하고 헬레벌떡 뛰어 간다.  
작은 매장 안에서 호떡을 파는 집이 있었다!  
포장마차 호떡을 기대했지만 이게 어디야.  
집에 와서는 주차 자리가 없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다.



천 원짜리 호떡이 뭐라고~

그때 내 표정은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며 남편은 회상한다.

다음은 바로 문제의 음식.

다른 건 다~ 너랑 함께해도 이것만은 힘들어!!

남편에게 가지볶음이 있다면, 나에게선 선짓국이 있었다.

붉은 덩어리가 뚝배기 가득 자리 잡고 들어앉아 있는 비주얼이라니.

30년 넘게 거리를 뒀던 음식인데, 간장게장을 먹고 나니 선짓국이 당기는 거다. 이 무슨, 싫어하는 음식 도장 깨기도 아니고!!

선짓국, 내장 가득 들어있는 얼큰한 순댓국. 완전 아재 입맛이다. 임신부 맞니~~~~

산부인과 교수님이 "엄마 닮아 예쁘겠어요"라는 말을 할 때까지 우린 바다가 아들인 줄 알았다.

그 와중에 말귀 한 번에 못 알아먹고 무슨 소리냐며 묻는 남편.

"핑크색이요. 핑크색 옷 사세요~"

우리 베라끼남의 헌신은 비단 음식뿐이 아니었다.

집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지하철역에 걸어서 7호선을 타고, 2호선으로 환승을 하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10여 분을 걸어 들어가야 도착이다.

이 먼 길을 임신 초기에 다녀야 했으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더구나 7호선은 종점인 부평구청에서 이미 만석이 된 채로 출발해서 임신부 뺑지를 달고 있어도 앉아서 갈 수가 없었다.

남편이 어느 날 단단히 결심이 선 표정으로 아침 일찍 나선다.

"벌써 출근해?"

"아니, 내가 부평구청으로 가서 자리 잡고 올 테니까 자기는 좀 천천히 나와. 내려와서 나랑 교대해서 앉아서 가."

이 말인즉슨, 부평구청행 지하철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부평구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에 남편이 앉아서 자리를 잡고(최소 2대는 보내야 자리가 났다) 출발 시간과 열차 타는 곳 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남편 자리에 앉아서 서울까지 가고, 남편은 다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다.

남편은 쉬는 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7월 1일 자 발령이 날 때까지 꼬박 석 달 가까이 나와 바다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애칭 그대로, 나의 양쥬(불어로 천사)다.

철분 수치도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정상 수치이고, 임신성 당뇨도 없고, 사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도 없고, 5개월까지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원래는 2년을 채워 근무해야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내신을 냈다.

교육청에서 배려해준 덕에 인천에서 가까운 편이었던 꽤 큰 학교로 발령이 났다.

학교가 워낙 커서 방과후학교 수납이 많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일이 거의 없는 학교였고 병설유치원도 없다.

그리고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면 30분 만에 도착이었다.

퇴근 때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아마 그곳에서의 한 달이 내 공직 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9화. 바다가 나타났다!!!

2014년 7월 1일 자 발령.

얼마 되지 않은 양의 업무 인계 인수를 하고, 작은 행정실에서 실장님, 차석 선생님과 오붓하게 근무를 시작했다.

전 학교에 비하면 모든 것이 좋았다.

출퇴근도, 일도. 프로페셔널한 실장님도 멋있었고, 남자분이신데도 급여 업무며 학교 모든 업무를 척척 해내시는 차석 선생님도 멋있었다.

"나만 잘하면 돼"

이곳에서는 야근할 일도, 편도 두 시간씩 용을 쓰며 출퇴근할 일도 없었다.

내 일 제대로 하면서 마음 편히 먹고 태교도 하면 딱 좋을, 그런 학교였다.

보름 정도 출근을 자~알 하는가 싶더니,

7월 22일,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아랫배가 묵직한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전 시행한 정기 검진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느낌이 썰렸다.

산부인과로 바로 가서 검사했더니 경부가 살짝 열려있었는데 그 사이로 아이 머리가 내려와서 조기 진통이 왔다는 거다.

앵, 저 아직 5개월인데요?

당분간 절대 안정, 입원 치료 요함.

당일 입원을 했다 퇴원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누워서 생활하고 편해진 덕분이었을까.

아이가 태동을 격하게 한다. 처음이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외할머니 오신 걸 너도 아는 모양이로구나!!!

개인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인근 큰 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고,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했다.

큰 병원에서는 당장 휴직하고 누워만 있으라고 한다.

"지난번에 3cm 열렸다고 진단받으셨죠? 지금 7cm까지 열렸어요.

이대로 두면 조산이에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요."

겁이 남과 동시에 스치는 생각. 아.. 저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안됐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육 대박 먹는 시추에이션이다.  
어렵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며, 걱정말고 휴직하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병가, 남은 연가 탈탈 털어 최대한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 주시고, 대체인력도 알아보신다.

왜 이 실장님을 다들 멋있는 분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 순간이다.

그렇게, 나의 행복했던 한 달은 끝이 났다.

연가와 병가를 몰아 쓰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질병휴직을 했다. 12월 1일 자로 복직해서 다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2월 29일이 예정일이어서, 이틀만 버티다 1월 1일에 짠~하고 나와 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있는 숨씨 없는 숨씨 총동원하여 자수를 놓고, 아이 배냇저고리와 손발싸개를 만들고, 수학 문제집도 풀고, 색칠공부도 하고, 음악도 당기는 대로 들어주고 수시로 올라와 주시는 엄마 덕분에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옷이 젖는 느낌이 들었다.

어라 이것은!!!

출산하고 나면 요실금에 걸린다더니 벌써?

그런데 아니었다.

양수가 터졌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하는 중인지 받지 않는다.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저 000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양수가 터져서 병원가는데 남편 연락이 안되는데 사무실 들어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조산기가 있었던 탓에 미리 출산 가방을 챙겨둔 게 다행이었다.

지갑과 휴대폰만 챙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 나 양수 터졌어. 바다가 나오려나 봐."

엄마는 그길로 전화를 끊고 친정에서 올라오셨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분주히 움직이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신신당부가 이어진다.

1. 양수가 터지면 24시간 내에 출산하셔야 해요.
2. 안 그러면 아이가 위험해서 제왕절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3. 그런데 산모님은 아직 경부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4. 촉진제 놔드릴게요. 관장도 할게요.
5. 저희가 수시로 체크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6. 담당 교수님 수술방 들어가셔서 담당 교수님이 아이 못받아 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촉진제를 맞고도 두어 시간은 아무렇지 않았다.

누워서 부모님과 친지분들께 연락 돌리고, 슝슝후후 연습도 해본다.

조퇴한 남편이 왔다.

"아직 시간 좀 더 걸릴 거 같은데 자기 저녁 미리 먹고 와~"

아차,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남편이 가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진통이 왔다.

"어? 경부 완전 열렸는데요? 분만실 이동하실게요"

저, 저기요. 남편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

이것은 소리없는 나의 아우성일 뿐.

"바다 나온대, 빨리 와"

"밥 이제 한 숟가락 뺐는데. 알겠어"

한동안 남편은 구박 아닌 구박을 받았다.

"가란다고 진짜 가니?"

"아니, 난 우리 누나들처럼 진통 몇 시간씩 하다가 아기가 나오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금방 나올 줄 알았나"

남편이 억울해 할 만 한 것이, 남편의 누나들은 모두 24시간씩 진통을 하고, 하다하다 안돼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나의 출산은...

"힘 주세요."

"한 번만 더요."

"힘~~~~"

이렇게 딱 세 번 힘주고 바다를 품에 안았다.  
얼떨떨함과 당황스러움과 기쁨이 한 데 섞인 표정으로 탯줄을 자르던 남편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엄마 가고 있는데 벌써? 뭐 이렇게 빨리 나와. 성질도 급하네 그 녀석."

담당 교수님이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신다.

"와~ 제가 만나 본 산모님 중 손가락에 꼽습니다. 황금 골반이시네요.  
아이 하나로 아까운데 더 낳으시죠~"

2014년 12월 9일 오후 5시 32분.

진한 쌍꺼풀을 가진 바다는 그렇게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 에필로그

여러분,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일부를 담은 이 9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감정이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아이와 만나는 여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쉬어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일 뿐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저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웃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기서 잠시 작별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이상, 저의 어시스턴트 쿼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서 모임에서 시작한 글쓰기 강성단(강제성장단)에서 매일 하나씩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차츰 글이 쌓이고 함께 글을 쓰는 분들이 제 글을 재미있어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다보니 브런치 스토리 작가까지 되었네요.

7월부터 11월까지 매일 글을 썼습니다. 하나둘, 제 글을 좋아하고 찾는 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언젠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공언했는데, 30개가 넘는 이야기 중 몇 개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꿈이 많은 아내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준 딸, 고맙고 사랑한다.

작가가 되는 여정에 함께 걸어주신 불박이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꿈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왔습니다.

소녀 시절, 엄마의 꿈은 작가였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나오던 엄마의 글을 들으며 행복해하던 소녀가, 같은 나이의 딸을 둔 엄마가 되었고, 엄마의 꿈을 이룬 딸이 되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딸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 부모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착하고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남편을 이리도 멋진 남자로 잘 키워주신 시부모님과 형님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자주 못 찾아뵙는데도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강사라는 꿈을 찾고, 2023년에는 작가라는 꿈을 찾았습니다. 제가 꿈을 찾아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주 자리를 비워도 늘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저의 직장동료분들,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뤼튼이 앞서 말했듯, 제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멀지 않은 때에, <로도남녀 2>로 여러분 곁에 나타나겠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저, 안온한 가운데 꿈꾸는 것을 놓지 않는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좋은 날, 어느 멋진 날, 또 만나요.



제목: 로또남녀

발행일: 2023. 11. 26.

저자: 꿈태공, 뽀튼 공저, 캔바 AI 그림(표지, 7화 삽화)

출판사: 유펴이퍼

가격: 3,000원